

증권사 투자 리포트 ‘모호한 표현’ 조심

한국 증시가 장기 조정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자의견을 제시하면서 모호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실제보다 기업상황을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잦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증권사 투자자의견은 ‘완곡어법(?) 투성이’ =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리서치센터를 두고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의 단위로 개별 기업 및 업종에 대한 투자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다.

투자자의견 중 향후 종목 예상수익률이 대략 최소 10%(이하 수치는 증권사마다 차이 있음)를 상회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살 것을 주문하는 ‘매수(Buy)’와 약 20~30% 넘을 때 내는 ‘강력 매수(Strong Buy)’는 국내 대다수 증권사들의 표현이 동일하다.

그런데 향후 예상수익률이 대략 ±10% 이내일 때 당분간 주식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이란 뜻인 ‘보유(Hold)’ 의견의 경우 상당수 증권사들이 ‘시장수익률(Marketperform)’ 또는 ‘중립(Neutral)’이란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다.

기업·투자자 의식 매도 의견 ‘거의’ 못내

선진 증시 냉혹·자유로운 평가와 대조적

또 예상수익률이 약 -10%를 밑돌아 팔라는 의미로 쓰는 ‘매도(Sell)’ 의견 역시 상당수 증권사들이 이 용어 대신 ‘비중축소(Reduce, Underweight)’, ‘시장수익률 하회(Underperform)’ 등 애두르는 말을 쓰고 있다.

이같은 투자자의견마저 각 증권사가 정한 예상수익률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은 채 한 등급 올려잡는 경우가 많아 ‘보유나 ‘중립’, ‘시장수익률’ 등의 의견이 실제로는 매도하라는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실토하고 있다.

◇‘매도’ 의견 제시는 ‘가뭇에 콩’ = 이처럼 투자자의견이 모호하고 너그러운 것도 문제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이 좋지 못한 종목에 대해 팔 것을 조언하는 ‘매도’ 의견을

자유롭게 내지 못하는 현 실정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리딩 증권사를 자처하는 삼성증권조차 작년 1월1일부터 금년 1월2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천건의 기업 리포트중 ‘매도’ 의견을 낸 것은 지난해 2월10일 인더파크와 11월6일 케이타이호텔 관련 보고서 2건 뿐일 정도다.

이같은 매도의견의 사실상 부재는 거의 모든 국내 증권사에 해당돼 ‘매도’ 의견이 나올 경우 그 자체가 큰 뉴스거리가 되는 게 현실이다.

일례로 올해 들어 지난 8일 CJ투자증권의 한 애널리스트가 현대오트넷의 실적부진 전망을 이유로 개장전 보고서에서 투자자의견을 ‘보유’에서 ‘매도’로 하향조정하자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했고 이후 이 회사 주가는 급락

해 9천200원에서 지난 19일 현재 6천950원으로 곤두박질친 상태다.

그러나 이 애널리스트가 이 용감한(?) 의견을 낸 뒤 치러야 한 대가는 혹독했다. 그는 당일 투자자들로부터 쏟아지는 항의와 욕설, 위협 전화로 회사에 출근을 못했고 이후에도 각종 압력은 물론 신변위협까지 당해야만 했다.

◇외국 선진 증권사들은 평가에 냉혹 = 반면 외국의 유명 증권사들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에서 자유롭게 투자 의견을 내고 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증권은 작년 11월30일 한국의 기아차 주식을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라고 혹평하면서 부진한 실적전망을 이유로 투자자의견 ‘매도’를 제시하고 목표 주가도 기존 1만3천원에서 1만200원으로 대폭 낮췄다.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널증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외국계 증권사들의 경우 엄정한 데이터와 실적 전망에 따라 해당기업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투자자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축협 ‘한우 농촌지킴이상’ 제막 광주축협은 22일 광주 동구 학동 광주축협 건물 앞에서 축협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 농촌지킴이상’ 제막식을 가졌다. 높이 6m, 폭 2m 크기의 청동으로 만든 이 상은 한우 두상만을 본뜬 조각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시간 ‘음메’하는 소 울음소리를 내도록 내부에 전자장치가 내장돼 있다. 위영평 광주시청 농정과장, 김수용 전남농협 부분부장, 안영수 광주축협조합장,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이상호 축산신문사장, 장춘환 농협나주사료공장장, 이의범 광주축협 이사, 김재수 월간한우 부사장(왼쪽부터) 등이 제막식후 박수를 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車보험사들 긴급출동 유료화 담합”

대법원 판결

자동차 보험사들이 과당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정단 회의를 열어 무료로 제공하던 응급·긴급출동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거나 유료화한 것은 담합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97년 이후 자동차 보험 10개 업체가 응급 서비스를 폐지하고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10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2001년도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이 97.9%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를 유료로 한 것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10개 자동차 보험사들은 1997년 11월 사정단 회의를 열어 과당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1998년 1월 1일 신계약분부터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오일보충, 엔진 과열응급조치 등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했다.

보험사들은 또 1998년 이후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5개 주요 긴급출동서비스 중 긴급 견인과 비상급유 서비스를 200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차례로 폐지한 데 이어 나머지 3개 서비스도 폐지하고 모두 유료화했다.

/연합뉴스

국내 조선기술로 ‘초호화 유람선’ 만든다

이르면 2010년께 국내 조선기술로 ‘타이타닉’과 같은 초호화 유람선을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화려한 외관장식, 수영장과 카지노, 고급 요리와 서비스 등을 갖추고 있어 ‘배의 여왕’ 혹은 ‘떠다니는 호텔’이라고 불리는 크루즈선(호화 유람선) 개발에 국내 조선업계가 발 벗고 나선 것.

22일 업계에 따르면 척당 가격이 5억~10억달러에 달하는 최고가 선박인 크루즈선 시장이 해마다 5% 이상

삼성중공업 등

2010년께 착수

성장, 향후 연간 12~20척 발주되면 서 최대 10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형조선소들조차 크루즈선을 건조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그동안 국내조선업계는 이 분야 투자에 소홀히 해왔다.

/연합뉴스

삼성중공업은 이에 크루즈선을 미래 전략 선종으로 지정, 2010년께 크루즈선 사업 진출을 목표로 유럽 조선소들을 벤치마킹하며 중·대형 크루즈선의 선형개발과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999년부터 카나리아 등 세계 3대 크루즈 선사가 운영하는 호화 크루즈선에 경영진과 기술인력 등을 승선시켜 조사·연구 활동을 벌여 왔다.

/연합뉴스

7%로 각 0.1%포인트 인상됐다.

외환은행은 만기별로 0.35~0.6% 포인트 수준의 큰 폭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3개월 정기예금의 경우 우대금리를 종전 3.9%에서 4.4%로 0.5%포인트 높였고 고시금리는 3.6%에서 4.2%로 0.6%포인트 인상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9일부터 실제금리 정기예금 고시금리를 1년 이상은 0.1%포인트,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0.2%포인트씩 인상했다고 밝혔다. 6개월 이상 정기적금 고시금리도 0.1%포인트 높였다.

/연합뉴스

삼성 이진희 회장 부부

현금 배당 200억 육박

이진희 삼성그룹 회장 부부가 주식을 보유중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으로부터 총 200억원에 가까운 현금 배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의 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273만 9천939주)와 삼성물산(22만6천110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회장은 2006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총 144억7천여만원의 현금을 배당으로 받게 된다.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삼성미술관 관장)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도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108만3천72주, 84만403주를 보유해 각각 54억원, 42억원의 현금을 배당받게 됐다.

이로써 이 회장 부부와 장남인 이 전무가 주식을 보유한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받는 현금배당액은 모두 240억원에 이른다. 또 삼성그룹 계열사들 간의 순환출자에 따른 상호 자본보유로 인해, 삼성 계열사들 역시 다른 계열사로부터 배당으로 두둑한 현금을 챙기게 됐다.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삼성중공업, 에스원, 삼성SDI, 삼성물산 등의 다수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삼성생명은 계열사들의 배당으로 총 600억원의 현금을 손에 쥘다.

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들로부터 각각 358억원, 345억원 가량의 현금 배당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각각 주당 5천원(0.8%), 5천50원(1.0%) 등 총 7천461억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키로 했다.

/연합뉴스

품양5차 ‘피오레’ 277세대 분양



대주건설은 광주시 서구 품양동에 품양5차 ‘피오레’아파트 277세대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5층 총 7개동 규모로 들어서며, 평형별로 38평(86가구), 45평(149가구), 52평(38가구), 75평(4가구) 등이 공급된다.

품양지구는 택지개발 완료시점으로 교통 및 교육, 생활권의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으며, 단지 인근에 품양저수지와 중앙공원, 금당산 등 풍부한 녹지공간을 확보했다.

또 상무·금호지구 등과의 접근성이 좋고, 최근 광주월드컵경기장 내에 롯데마트가 오픈하는 등 배후 프리미엄도 높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모델하우스는 광주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으로 오는 26일 오픈한다. 문의 062-369-0000.

대주건설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뿐 아니라 60% 중도금 무이자 가능하다”며 “높은 투자가치와 함께 계약금 5%에 분양 1년 후 전매가 가능한 점도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해외 부동산 투자 1년 새 50배 폭증

작년 7억8천만달러

정부가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난해 개인 및 법인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는 350만 달러를 넘는 호화주택과 28만달러에 달하는 골프장 회원권 등이 다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47건, 2천270만달러보다 건수와 금액이 각각 51배, 34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월과 3월 개인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기관을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변경하고

취득 한도를 폐지한 데 이어 5월에는 100만달러 범위 내에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을 자유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개인의 해외부동산 구입이 크게 증가했다.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금액은 5억1천400만달러(1천268건)로 전년도 9천300만달러(29건)보다 55배 가까이 폭증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부동산(2억7천만달러)이 투자용 부동산(2억4천만달러)보다 많았으나 주거용은 작년 6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투자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금액 가운데 최고 금액은 미국 뉴욕에 있는 299만달러 짜리 주거용 주택이었고, 실제 취득가액 중 최고가는 캐나다 밴쿠버 소재 352만 달러 주거용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종부세 불복청구 첫 수용 결정

국세심판원

국세심판원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불복 관련 국세심판에서 처음으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심판원은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 내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A씨에게 2005년 귀속 종부세 240만원을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과 관련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은)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감면을 허용해야 한다”며

또 상무·금호지구 등과의 접근성이 좋고, 최근 광주월드컵경기장 내에 롯데마트가 오픈하는 등 배후 프리미엄도 높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모델하우스는 광주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으로 오는 26일 오픈한다. 문의 062-369-0000.

대주건설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뿐 아니라 60% 중도금 무이자 가능하다”며 “높은 투자가치와 함께 계약금 5%에 분양 1년 후 전매가 가능한 점도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세법상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신청을 조세감면의 필수적 요건(신청감면)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히닉스무역	영업관리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1/24	02-586-7136
㈜지티엔	KTF중계기 유지보수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1/24	062-941-5300
INBET(인베트)	웹디자인 정규사원모집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01/25	050-5223-9063
신원전자정밀㈜	품질관리·경력 차고관리·신입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1/25	062-944-8471
IAE 유학네트 광주지사	해외 유학/어학연수 상담 및 관리 사원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6	062-233-8171
㈜L.S.T	전산 시스템 운영관리자 모집	대졸/경력무관	2000~2200	01/26	062-650-6545
OAL나라	외근 A/S 직원모집	초대졸/경력2년	1600~1800	01/26	062-224-6073
㈜윙정보기술	솔루션 영업/시스템 영업 사원모집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1/26	062-524-4554
플로리엔코스메틱스	롯데마트 점단점(광주) 화장품판매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29	02-312-2872
EK Productions Inc.	전시 및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0	062-513-5050
㈜현우기공	기계설계 경력 사원모집	초대졸/경력3년	2000~2200	01/30	062-954-4369
㈜창명	해외영업 및 국내영업 사원 모집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1/31	061-795-9007
디자인수	인테리어기사 경력직 채용	초대졸/경력1년	1600~1800	01/31	062-610-5585
㈜오이솔루션	2007년도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공고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1	062-602-765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